

사회적 농업 통한 농촌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지난 5년간 양적 성장
체계적 육성·지원 부족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
국내에서 성장 기회 될 것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289호) '국가단위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및 과제'를 통해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지난 6월 전라북도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을 통한 농촌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연구책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 사회적 농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체계적인 사회적 농장 육성 및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사회적 농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국립 농업 및 플랜트 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센터의 농장주 교육, 운영 지원,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 제도적으로 성장한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업인과 공동체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달해 왔다고 한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도에 설립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농장주의 전문적인 교육과 농장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원센터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 이해 교육, 사회적 농장 육성, 전문인력 양성, 홍보,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조원지 연구위원은 말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동안만 사회적 농장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년 후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불안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장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된 후 지원센터의 수요자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적합한 농장에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장과 취약계층을 매칭 시켜주는 서비스 플랫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갖춘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선출

부위원장 등도 청년으로... 청년 대표성 향상·의견 도정 반영

지난달 31일 개최된 22년도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초로 청년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도 행정부지사 및 청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국본부장과 청년정책전문가, 청년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활동하는 제3기 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청년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3기에서는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청년으로 선출해 위원회의 청년 대표성을 높이고 청년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진 전북연구원의 제2차 전라북도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위원들의 정책제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일 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정책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을 요청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실제 정책의 추진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정책과제 도출과정에 미리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과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23년부터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23년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3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김경수 기자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받아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는 19일 개최하는 제246회 정례회(9.19.~10.7.) 기간 중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익산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정의 투명,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으로 접수된 시민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그 처리사항을 시민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제보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우편(익산시 인북로22길 1 익산시의회 의사실, 063-859-4174) 및 팩스(063-859-4058), 익산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iksan.go.kr) 열린의회 >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최중오 의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목영숙 여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함께 존중받는 세상, 실천하는 전북”

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작품 전시 등 진행
도내 14개 시·군별 행사도 다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2년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1일 도청 공연장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 단체,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라북도 양성평등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 화합 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22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바탕으로 '함께 존중받는 세상, 함께 실천하는 전북'이라는 전북도의 주제 아래, 행사 참여자 모두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보

다'라는 주제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샌드아트 공연과 화합한마당 행사도 열렸다. 한편,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양성평등 포스터 작품 전시회,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상담부스 운영,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했다. 양성평등주간 동안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깊숙이 자리한 편견을 털어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효율적인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협조체계 마련

도, 안전협의회 열고 서해지방해양안전관리계획 설명 등 진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사항, 수상레저 안전 업무의 개선 및 보완사항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개최됐다. 도 행정부지사 등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해 전라북도 수상레저 안전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 2명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북도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258건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레저사업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인 레저활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상레저 안전업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전라북도수상레저안전협의회에서는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 관련 설명 및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보고, 수상레저 안전업무 개선 및 보완사항 등이 논의됐다.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장이 설명했다.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는 도 사회재난대응팀장이,

수상레저 안전업무 개선 및 보완사항 등은 수상레저 전문가 배준성씨가 보고했다. 수상레저 안전업무 개선 및 보완사항으로는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장비 및 기구 점검 시 안전기준 등 장비별 특성 파악, 신종 수상레저 장비 점검 방향 등을 논의했고, 대안으로는 수상레저 담당자가 직접 수상레저기구 체험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제시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44 44 44 44 44

그리고 반딧불이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2022. 8. 27.토 - 9. 4.일

축제 문의 063-324-2440
www.firefly.or.kr